

△決勝前半12분  
慶熙大 門前을  
교란시키고 있다.△東大축구를  
결승전까지  
끌어올린  
선수들。△本會崔載九회장이  
만찬을  
베풀어  
선수들을  
격려하고 있다.

# 頂上고지서 憤涙...常勝東國의 未來는 불다!

## 決勝서 敗退...準優勝

### 全國大學蹴球선수권大會

決勝에서의 敗退一悵涙을 삼킨 한판이었다。 그동안 不振했던 東國體育의 恨을 풀어줄 것을 기대하며 孝昌球場으로 달려온 2백여 동문들과 5백여 학생들은 『창창한 남산기슭 우리東大는...』으로 시작되는 우리 응원가를 부르며 열번應援을 했지만 눈앞의 우승을 놓치고 결국 準優勝에 머물렀다. 이나마 우리는 自慰한다. 常勝東國의 可能性을 보여주지 않았는가. 勝利에 너무 굽죽였기에 풍파한, 그야말로 청량제보다도 시원한 「한풀」을 바랐건만 끝내 이루어지지 않은 꿈이었다.

### 게임 이기고 勝負에 져

○... 지난 26일 (日) 효창구장에서 막을 내린 제31회 전국대학축구선수권대회에서도 교 축구부는 결승전인 對경희대戰에서 1 대 0의 苦盃을 막았다.

결승전은 前半 슈팅수 5-2로 경희보다 공격량에서 우세를 보였다. 전반 12분 FW 崔完植이 門前混戰에서 「페날티에리어」正面에 강타한 불은 위쪽 「골포스트」를 때리고 나왔으며, 41분에 또 한차례 門前混戰에서 H.B 金容德이 「골에리어」正面에서 간신히 불이 GK의 유틸을 맞고 나와 결정적 찬스를 득점으로 살리지 못했다.

후반 東國은 바람과 夕陽을 안고 싸우는不利한立場을 딛고 FW 金龍海의 적절한 패스에 의해 경희门前을 수차례 교란시켰으나 매번 무위로 끝나고 말았다. 후반 16분 1점을 허용한 東國은 경기종료까지 死力を 다했으나 경희수비진의 철벽수비를 뚫을 수가 없어 우승을 넘겨주고 그라운드에 주저앉고 말았다. 한편 東國은 총 10개팀이 참가한 이번 대회 예선전에서 槩大를 1~0으로 제압했고,準決勝에 올라 대를 맞아 경기초반부터 선제점을 올린 뒤 崔完植의 명활약으로 2대 1로 격침시켰다.

### 「골게터」崔完植最多得點賞

골게터 FW 崔完植은 이번 대회에서 2골로 最多得點賞을 차지했다.

○... 東國으로서는 이번 대회가 全國大學에 서 지난 70년 주제 대회연맹전 우승 이래 7년 만에 결승전에 진출하는 崔完植로서, 비록 優勝은 놓쳤지만 全東國人의 가슴을 뿌듯하게 해준 오랫만의 경사였다. 앞으로 더욱 뛰어 기량을 뛰어 더 좋은 성적을 거둘 것을 東國人 모두는 기원한다. 東國이여! 승리를 잡아라.

### 會長團서 選手 격려 만찬회

○... 경기가 끝난 직후, 本會 崔載九회장을 비롯한 會長團一同은 選手全員을 불러 市內 퇴계로 4가 大林亭에서 만찬을 베풀고 善戰을 격려했다.

이날 崔회장은 人事에서 『이번 대회에서 東大축구의 健在함을 보였다. 6·25 前後 東大·高大·延大的 三巴戰이었던 전통을 회복하려는 노력이 아쉽다. 이번 대회에서 東대축구의 洋洋함을 보였으며, 「하면 된다」는 신념으로 「常勝팀」이라는 「팀 컬러」를 이룩해나가자』고 위로 격려했다.

또한 姚允武 학생처장은 『東大體育의 中興을 위해 체육과를 체육부로 승격시켰고, 선수 활동소도 곧 착공하게 된다. 지원과 결실이一切가 되도록 분발하겠다』고 말했다.

# 東友會報

發行所  
서울特別市 中區 筆洞  
3街26 東國大學校 内

東國大學校  
同窓會  
直通  
交換  
우편대체구좌번호  
525669번

本會는 同門相互間  
의 友誼增進과 母校發  
展에 기여키 위한 事  
業을 전개한다

# 車主賠償責任保險

(26) 3111~5

# 東國大學校(各大學院) 大學生院(男·女)

장식용 各種電話機械...營業所 (26) 7654  
교환臺 · 인 타 폰 ...工 場 (26) 2201

# 東國大學校 二和電子社

一、募集課程 및 학과 : 博士·碩士課程 (△포한 학과는 碩士課程만 開設되어 있음)  
①行政學科 : 組織管理·人事行政·財政行政·計劃行政·都市行政  
②安保行政學科 : 公安行政·國防行政·防衛產業  
③教育行政學科 : 教育行政專攻  
④其他考試獎學金 優等獎學金·總長獎學金  
五、銓衡方法 : 書類銓衡·面接  
六、銓衡日時·場所 : 一九七七年六月十日부터 七月十五日까지  
七、銓衡日時·場所 : 一九七七年七月十六日 (土) 午後二時 本行政大學院  
電話 (直) ②8574 (交換) ②8131~9 ②8141~5 (237)

一、募集課程 및 학과 : 博士·碩士課程 (△포한 학과는 碩士課程만 開設되어 있음)  
佛教學科·哲學科·國語國文學科·英語文學科·史學科·物理學科·化學學科·經濟學科·△商學科·△經營學科·△印度哲學科·△演劇學科  
二、願書交付 및 接受 : 一九七七年六月十日부터 二五五八까지  
銓衡日時·場所 : 一九七七年七月三日 (土) 午後二時 本大學院  
銓衡方法 : 答試驗·面接  
電話 (直) ②3256 (交換) ②8131~9 ②8141~5 (237)

## 經營大學院 (男·女夜間)

一、募集課程 및 研究課程 : 碩士課程  
①碩士課程 : 人事勞使管理·生產管理·市場管理·貿易  
②貿易稅務會計·保險管理·電子情報處理·經營法律  
二、願書交付 및 接受 : 一九七七年六月十日부터 七月二十二日까지  
三、銓衡日時·場所 : 一九七七年七月二十三日 (土) 午後二時 本經營大學院  
四、銓衡方法 : ①碩士課程 : 銓衡·面接  
五、特典 : ①電子情報處理 (EDPS) 및 生產管理專攻은 本校 컴퓨터센터를 利用할 수 있음  
②貿易稅務會計者는 一年修了後 貿易士필기시험상의 免除惠澤 있음  
③在學生의 在職企業體로부터 研究生의 委託·經營相談·委託研究 및 共同研究의 의뢰에 대하여는 特別히 優待함  
④公務員全員 (教員·軍醫·警官) 및 女學生에 奨學金支給함  
⑤기타 研究費 및 考試獎學金 特典 있음  
電話 (直) ②8140 (交換) ②8131~9 ②8141~5 (237)

其他 詳細한 것은 各大學院 教務課에 問議바랍니다.

서울特別市 中區 筆洞 3街26番地





1977年6月27日 (月曜日)

〔4〕

# 定着斗再昭明

# 周와 未來의 東國



승리만이 있을뿐이다. 개교 71주년—  
가 어디 우리들만의 기쁨이라! 民族  
들도 초선의 노력을 겸주하고 있다.

教人의 보편적인 자세를 말한다.佛道인 깨닫는데에 있다.佛道인 자세를 말한다.  
④度世 = 「救度迷世, 佛道而誰」를  
출연으로混迷한 세상을 救하고 전  
지난 것이 내가 아니고 누구이겠는가  
나의뜻이다. 이는 自覺에 最終의 인  
목적을 두지 않고 自覺에 行할여世  
上과世의 모든 사람을 濟度하고 救  
濟하겠다는 大乘佛教精神의 具顯을  
가장 韶계로 表現한 말이다.  
이상의 풀이를 다시 요약하여 알  
기 쉽게 表現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信實은 투철한 信心를 갖고  
세상을 바로보아야 한다는것이므로 이  
는 꿈 「主觀의 확립」이고,  
둘째 慈愛는 慈悲하고 착한 마음으로 범파 친교해야 한다는 것  
이므로 이는 「友愛의 도록」을 말  
한 것이고,  
네째 度世는 衆生濟度에 내가 먼저  
서제 摄心은 마음을 닦고 깨달  
을 물 이로 어야 한다는 것으로 이  
것은 佛「人格의 完成」을 가르키는  
것이며,

學校의 建學理念과 教育目標를 가진 한 학교의 特히 大學의 校訓은 국어 緬文로 표현하는 것이므로 『大學生』의 句속에 「길을 뜯어온 뒤에 그 길을 되돌아온 뒤에』라는 어려운 한 문장의 意解를 하기 어렵다. 따라서 東國人에게 校訓의 바른 뜻과 같은 내용을 알려주는 문제이지 어렵다고 해서 바꾼다는 것은 날카롭기 어렵다. 필자의 의견은 校訓은 그대로 놓아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制度」보다는 「運營」이라는 말이 우리에게 중요한 데 있다.

그러나 한個人에 있어서個性이  
랄것이 없고 또 한집단에 고유  
한精神이라고 할만한것이 없을수  
도 있을것이다. 위의 논법에 따르  
면 그들을 통합사, 밤도 둘도  
거지지 않은 그릇, 가제의 빙그릇  
에 남자나 않는 식이다. 그 그릇은  
특색지우는 내용물이 빠져있는 경  
우처럼 평범한個人이며 유무부여  
한集團일뿐이다. 있으나 마나의 미  
릿수만 채우는 따라서存在理由가  
없는個人과集團은 사람도못도集  
團구실도 못하는存在가될뿐이다.  
거기엔的生命이 것들어있고 할수  
있으니 바로無生命體이며 여기자  
기에 脊椎 있는 돌멩이와 별로 다  
를것이 없다.  
따라서大學은 더욱 더 명실상  
부하게 理想追求集團으로서의 本來  
의 面目을 살려가야 한다.  
大學이라는 이름 끝, 그릇속에 大  
學으로서의 充實性이 빠져 있다면 그  
걸 없는 그림자만이나 우스운경  
되고 만다. 生命充満體로서의 大學  
이無生命하고 青春集團으로서의  
老養化된다면 大學으로서 대학의 자  
리를 떠난 그야말로 유령무실한 그  
래서 한낱 無生命體로 전락해버리  
는 결과가 될 것이다.  
그러면 우리大學은 어느 말을 와  
있는 것일까? 東大는 어디에 자리

鄭  
王從

## 東大精神의 摸索과 定立

## “未來志向의 一陣新風을”

의 자랑거리는反省과自我批判 있는것이  
정신속에서만 찾을수 있는것이  
아닐까? 우리가 학생시절의 東大  
의 전신인 中央佛廟이나 慶應會社  
방에서 6·25까지의 새로온 東大  
가 똑똑들이시 피한 文化的으로  
성과의 보람을 찾는 역할하게 되었을  
엄하고 있다. 祖上과 파거의 업적과  
위는 불문에 불여 두기로 하자. 과거  
를 팔고 사라진 빛을 재ือง하고자  
기에는 우리는 너무 쉽고 未來에  
의 기대가 너무나 크다. 열마간의  
空白따위는 유구한 역사속에선 아  
무것도아니며 그 일시적인 담보는  
二步前進을 위한  
一步의 後退가 되지

는 파연, 염마를이나 佛敎의 精神을 반영, 찰달해았는가. 宗교大學의 도서의 使命과 특징을 염마를살을 려왔는가? 여타의大學에서는 늘수없는 東大, 特有精神確立와 實踐躬行을 위해 염마를이나 노력, 정진해왔는데?

의 일당이 있음을 두 말 나위도 없다. 위에서와 같은 풍자와 자기 반성과 비판의 감수 및 자기 개조에서 精進을 이 세상 宗敎大學으로서의 진면목에 東大의 大學으로서의 固有性과도 東大는 神韻하게 한국에 있어서의 진면목에 것들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70여년의 年輪을 딸지기에 앞서 면전에 舊式의 佛敎의 세계大學의 그것과 견주어 보아 아울러 면전에 舊式의 佛敎의 세계大學의 그것과 견주어 보아 아울러 면전에 舊式의 佛敎의 세계대학으로서의 거창한 도약을 감행해야 할 꿈에 불풀어 있었던 것이다.

# 東友會報 一周 (祝)

발전을 기원합니다

# 東友會報창간一周 (祝)

東亞建設產業(株)海外輸出事務

(株) 空 橋 鐘 白 代表理事  
海 洋 電 業(株) 元 容 基 常務理事

常務理事	吳	基	平
仁	昌	乾	材(株)理事
仁	昌	漢	醫院
副社長	金	照	明
會	慶	產	
代 表 理 事	星	總	
長	業	業	
張	(株)	社	
裕			
吉			







